

나주시 반남면 상대마을, '제3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다시 화동·산포 마성마을 이어 치매 돌봄 체계 구축
경로당·노인가구에 안전바 설치 등 주거 안전 개선

나주시는 반남면 대안리 상대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독거노인 주거 안전 개선 등 다각적인 치매친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 구성원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60세 이상 마을 주민 치매검진 전수조사를 비롯해 초기·경증·중증환자별 인지 강화 프로그램, 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

조모임, 치매인식개선활동 등 치매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남면 상대마을은 다시 화동, 산포 마성마을에 이은 3번째 치매안심마을이다.
시는 치매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마을 경로당과 치매 위험성이 있는 노인 가구에 낙상방지 안전바, 가스 자동 잠금장치, 전등 리모컨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환자와 가족들

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마을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치매 인식개선과 친화적 환경 조성의 주체인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매 조기 상담 및 검진, 등록 등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치매안심센터(339-4786)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찾아가는 목욕·빨래방 서비스 개시

208개마을 1938명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서비스 제공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일 도덕면 장전마을을 시작으로 2021년도 찾아가는 이동목욕·빨래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년 이동목욕·빨래방 서비스는 관내 208개 마을 1,938명을 대상으로 차량 3대와 관내 5개 자원봉사단체(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

회, 여성의용소방대,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참여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목욕차량은 군에서, 빨래차량은 노인복지관에서 따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올해는 두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감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복자 여성자원봉사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언제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구례군,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취약계층 영양문제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 증진

구례군이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2021년 4인 가족 기준 134,046원) 이하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자에게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 식품 패키지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 연중 신청을 받고 최대 1년간 쌀, 감자, 달걀 등을 각 가정에 식품배출 위탁업체를 통하여 배송한다.
구례=박진호기자

한전 장성지사, 설명절 맞이 봉사활동 시행

장애인협회 봉사활동 통한 사회적 가치구현



한전 장성지사는 3일 설 명절을 맞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천하고자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한전 장성지사 사회봉사단은 장

성읍에 위치한 장성 장애인협회(회장 김평호)에 방문하여 장애우들을 위해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후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봉사를 지양하고 필요 물품을 후원하는 방식의 언택트 봉사 활동을 시행하였다.
한전 장성지사 전현석 지사장은 “장애우들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설비도 점검해 드리고 생활에 불편한 것도 찾아 해소해 드리면 좋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활동이 어려워 안타깝다”며, “한전 장성지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 운남면, '취약계층 지원' 비대면 온라인 회의

무안군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회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

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단체카톡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 복지시설 3개소, 저소득 10가구를 선정하여 과일, 쌀, 생필품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문재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통은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를 실시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손길의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